

'엘 클라시코' 더비 바르샤 웃었다

이브라히모비치 결승골 레알에 1-0 신승 '선두 도약'

'트레블'에 빛나는 FC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축구전쟁인 '엘 클라시코' 더비에서 '호화군단' 레알 마드리드에 승리했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햄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국왕컵을 석권하며 3관왕을 달성했던 바르셀로나는 30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누캄프에서 열린 2009-2010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홈경기에서 '이적생' 플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낸았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12경기 연속 무패(9승 3무·승점 30) 행진으로 레알 마드리드(9

승 1무 2패, 승점 28)를 끌어내리고 1주 만에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지난 5월3일 안방에서 빼아풀 2-6 패배를 당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후 '특급 왕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하얀 페리' 카카, 카림 벤제바 등을 영입하는 '제2기 갈라티코 정책'을 펼쳐 바르셀로나와 일전을 준비했으나 '마라도나의 재림' 리오넬 메시와 티에리 앙리에다 사위엘 에토오를 내주고 데려온 스트라이커 이브라히모비치 등을 앞세운 라이벌을 넘지는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카카와 호날두의 활상적인 호흡을 앞세워 기선을 잡았지만 몇 차례

득점 기회가 상대 수문장 빅토르 발데스에게 막혔다.

실점 위기를 넘긴 바르셀로나는 후반 6분 앙리 대신 교체 투입된 이브라히모비치가 해결사로 나섰다.

이브라히모비치는 그라운드에 들어선 지 5분 만인 후반 11분 다니엘 알베스가 크로스를 올려주자 시원한 발리슛을 날려 '거미손' 이게르 캐시야스가 지키는 레알 마드리드의 골문을 꽂았다.

바르셀로나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사비 에르난데스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1점차 승리를 지켜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호날두를 빼고 벤제마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웠으나 거센 반격에도 만회골을 뽑지 못해 결국 1점차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셀틱 입단' 기성용 메디컬 테스트차 英 출국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셀틱 입단을 앞둔 기성용(서울)이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려고 내달 1일 영국으로 출국한다.

기성용의 메니저먼트사인 IB스포츠는 30일 "기성용이 셀틱에 사흘 동안 합류해 메디컬 테스트와 더불어 토니 모브레이 감독과 첫 인사를 하고 나서 5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내달 3일 새벽 흄에서 치러질 셀틱과 하포엘 렘 아비브FC와 2009-2010 유럽축구연맹 유토파리그 조별리그 경기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성용은 이번 방문을 통해 셀틱 합류 일정을 확정하고, 취업하기가 나을 때 까지 국내에서 마무리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구 명문' 신광중, 선수 전용 휴게실 건립

올해 전국 정구대회 여중부 4관왕을 차지한 광주 신광중이 최근 훈련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선수 전용 휴게실을 건립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총 공사비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9월28일 착공돼 2개월만에 세워진 휴게실은 선수 휴게실 외에도 사위장·탈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기량 향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광중 정구부는 올해 장원배(4월)·동아일보기(5월)·전국소년체전(6월)·대통령배대회(7월) 등 4개대회에서 우승, 전국 최강의 기량을 과시했다.

/서승원기자 swseo@kangju.co.kr

프로배구 '11월 MVP'

김요한·케니 선정

프로배구 김요한(LIG손해보험)과 케니(현대건설)가 지난 달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남녀 선수로 뽑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0일 경기운영위원, 심판위원, 경기판독 위원 등 17명이 참가한 'NH 농협 11월 MVP' 투표에서 김요한과 케니가 나란히 10표를 얻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요한은 소속팀을 1리운드 전승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득점 5위(117점), 공격 종합 3위(51.69%), 후위 1위(67.92%)에 오르며 주공격수로 제 역할을 했다.

케니는 현대건설이 1위를 달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득점(144점), 공격종합(48.27%), 쿠오픈(58.33%) 등에서 1위를 달리며 팀의 주 포로 맹활약했다.

/연합뉴스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왕관, 복부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관은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나마이나 혈관과 호르몬제의 노동이 된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둘러하여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멤큐나프리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하고 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활성화 이북제 체외로부터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화분속 단백질이 모두 혈류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한달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동북아 경제 중심지.. 서해안, 새 만금을 주목하라!

세만금~변산~고사포~격포~상록~모항 해수욕장 까지의 투자 벤트 형성

○검증된 추천 물건○

•상록해수욕장이 보이는 팬션부지

1200평(전) - 평당 70만원(2~300평 분할 가능)

470평(답) - 평당 150만원(상가 및 팬션, 분할 가능)

•격포 바닷가, 팬션, 모텔부지

500평 - 평당 180만원(내, 전, 모텔, 1등 포함)

•전원주택 및 투자부지

1000평 - 평당 25만원(답)

600평 - 평당 30만원(답)

500평 - 평당 60만원(부안읍 앞, 주택 1등 포함)

- 투자물건 다양학보증(소액부터 딱각까지)

* 세만금 관광圣地 일박으로 편선 투자, 광주의 첨단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낸 25%이상 보정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초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 적기

* 오랜 실무경험으로 매입에서 매도까지 책임증개

서해안·새만금 지역 전문 중개업소 보임부동산 투자개발

상담원명 : 062-527-8844/010-8004-5900/016-609-5888

상담 주문 010-7770-8138

농협 302-0136-6325-61(권목연)

* 주문주시면제 / 무로배송

광주시체육회 영어회화 열풍!

'2015 하계 U대회' 등 대비

원어민 초청 요일별로 수업

광주시체육회에 영어회화 열풍이 불고 있다. <사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시간30분씩 폴리필립원어민을 강사로 초청, 실용 회화 수업을 3개월째 받고 있다.

오는 2015년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U대회에 대비해 원활한 손님맞이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광주시체육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영어회화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르비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다녀온 전학철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이 극구하자마자 바로 직원들에게 '회화 수업' 특별을 내린 것이다.

전 처장은 "오는 2015년 하계U대회를 개최하는 국제도시의 체육회 직원들로서 외국인들과 기본적인 소통은 해야 될 것 같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 직원 54명은 지난 9월부터 폴리필립원어민 강사 애밀리 바쿠스(Emilybacus)를 초청해 본격적인



영어회화 공부에 돌입했다. 체육회는 소속 건물별로 요일을 달리해 강습을 받고 있다.

체육회사무실이 있는 염주체육관 직원들은 금요일, 월드컵경기장 직원은 화요일 그리고 무등경기장 직원은 월요일에 각각 수업을 받는다.

강습 초기엔 어색해 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짧막한 논담은 영어로 할 정도로 자연스러워졌다.

이들 중 '최고작 학생'인 박재현(52) 경기운영부장은 "오늘만은 영어공부를 하게 괴롭힐 게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부터 꾸준히 한다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서 자신있는 손님맞이도 가능할 것 같다"고 회화수업의 유익함을 강조했다.

경기팀 흥은주 주장은 "처음엔 조금 쑥

스러웠는데 지금은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며 "요즘은 가끔씩 영어로 꿈도 꾼다"고 의식스런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수업 열의 '학생'도 있다. 경기팀 박성웅 주장은 영어는 물론 러시아어 까지 능통해 수업에서 빠지는 대신 '사무실 지침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주임은 이에 대해 "학창시절 수업 빠진 '기쁨'은 있지만 가끔 외톨이 같은 느낌을 듣는다"며 장학생(?)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시간이 갈수록 원어민 강사의 발음과 비슷해져가는 시체육회 직원들의 뜨거운 학습 열기 속에서 오는 2015년 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자신감이 담겨져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男 테니스 다비덴코

시즌 최종전 우승

니콜라이 다비덴코(7위·러시아)가 남자 프로테니스(ATP) 2009 시즌 마지막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했다.

다비덴코는 3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O 2 아레나에서 열린 바클레이스 ATP 월드투어 파이널 단식 결승에서 후안 마틴 네텔로(5위·아르헨티나)를 2-0(6-3 6-4)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오상은-김정훈組 복식 우승

폴란드오픈 탁구...박미영 여 단식 준우승

(상무)과 복식 흥행을 맞췄다.

오상은-김정훈은 결승에서 첫 세트를 내주며 불안한 출발했지만 2, 3, 4세트를 내리 받아아세 세트 스코어 3-1로 뒤집었고 5세트를 끝으로 6세트를 11-7로 가져와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또 여자단식 결승에서 올랐던 박미영은 결승에서 중국의 펑잉을 상대로 첫 세트를 따내고 끝내 1-4로 역전해 준우승했다.

이밖에 21세 이하 남자단식에 나선 서현덕(부천 중원고)도 중국의 상준에게 덜미를 잡혀 우승을 아깝게 놓쳤다.

/연합뉴스

1일(화)

▲2009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14:10·SBS)

▲2009 전국검도선수권대회(14:10·KBS1)

▲09/10 V리그(KT&G : 현대건설)(16:40·SBS스포츠·KBS n스포츠) /삼성화재 : KEPCO45)(18:40·KBS n스포츠)

▲09/10 프로농구(KCC : 삼성)(18:50·MBC ESPN) /SK : KT&G)(19:00·SBS 스포츠)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8027 김필장 위치: 법원정문앞

숙박시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객실(개)	화물기	비고
광주	호동로 500-19호	596.98	56	10인실	
광주	호동로 500-19호	596.98	10	4인실	